

충북 사랑의 온도탑... 최고 모금액 달성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19 나눔캠페인... 73일간 대장정 마무리

12억원 ↑ · 78억7천만원... 8년 연속 목표 달성 · 전국 1위 100도 돌파

이장섭 정부부지사 · 이명식 충북모금회장 등 임직원 30여명 참석해

‘희망2019나눔캠페인 폐막식’ 진행... 도움 절실한 이웃에 공정배분 약속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19 나눔캠페인이 73일간의 대장정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충북은 올해 사랑의 온도탑 117.7도를 기록하며 8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명식, 이하 충북모금회)는 지난 31일 오전 청주시 상당공원에 위치한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이장섭 충청북도 정부부지사와의 이명식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19나눔캠페인 폐막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현장에 나온 참석자들이 “나눔으로 행복한 충북,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 충북도민 여러분, 감사

합니다”의 감사메세지 전달,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되었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된 희망2019나눔캠페인은 66억8천9백만원을 목표로 전개해 78억7천만원의 성금을 모아 사랑의온도 117.7도를 기록했다. 캠페인 기간 동안의 성금 내역을 보면 현금기부는 48억6천만원(61.8%), 물품기부는 30억8백만원(38.2%)에 이른다. 또한 개인기부 31억5천만원(40%), 법인기부 47억2천만원(60%) 참여했다. 이명식 회장은 “모여진 도민들의 정성을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더 많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희망2019나눔캠페인이 117.7도를 달성하며 73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 하고 폐막했다. 1월 31일까지 모금된 총액은 78억 7천만원이다.

충북지역 경제 성적표, 2018년에도 빛났다

고용률 69.1% 전국 2위, 취업자 16천명 증가

지난해 12월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충북 지역내총생산(GRDP)은 55.3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국대비 충북 경제비중도 2010년 3.12%에서 2017년 3.56%로 늘어난 성장을 기록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GRDP가 22.8%(288.8조원) 증가하는 동안 충북 GRDP는 40.0%(15.8조원) 증가로 전국 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충북연구원에 따르면 충북경제 성장률은 2018년 4.22%, 2019년 3.97%로 전망하고 있어, 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보다 높은 성장세로 충북경제의 전국우위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충북경제는 투자유치, 수출, 고용 등 모든 지표에서 전국 우위의 성과를 지속했다.

투자유치 43조 7,707억원으로 당초 목표 40조원을 초과 달성하였고, 2018년 투자유치액도 8조 5,973억원으로 민선 7기 목표 40조원 달성의 기초를 닦았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투자유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를 받았다(18. 12월).시각과 함께 본격화될 투자

유치는 건설단계를 지나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충북경제 규모도 투자유치 성과만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도 충북지역 연간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인 232억불로 도정상상 처음으로 200억을 달성(2017년) 이후 1년 만에 또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미·중 무역분쟁, 세계 반도체 시장 침체 등으로 수출여건 악화 속에서도 충북 지역은 연간 수출 증가율 16.2%를 기록해 전국 증가율 5.5% 보다 높은 증가세이다. 연간 고용률은 69.1%로 전국 2위(전국평균 66.6%), 실업률은 전국 최저 수준인 3위(충북 2.4%, 전국평균 3.8%), 취업자 16천명 증가(증가율 1.8%, 전국증가율 0.4%) 등 고용 여건도 전국을 앞섰다.

충북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요 감소와 국내외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충북경제 여건도 어려움이 처해 있지만 4차 산업혁명 기반 미래 신산업과 신에너지 산업을 충북도가 먼저 선점하고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등 기업의 글로벌화 정책을 추진하여 전국 우위의 경제성장을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확대

충북도, 청소년 센터 등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까지 대상 넓혀

충청북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충청북도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경조사, 병가, 연가 등 종사자 업무공백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추진하여 왔다.

그 동안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급년부터는 청소년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여성가족부 소관 생활시설까지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더 많은 시설의 종사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 생활지도원 등 돌봄인

력에게만 지원되던 대체인력을 조리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충북사회복지사협회(회장 이원기)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은 신청을 통해 지원유별로 최대 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동료에게 업무의 부담이 전가되고, 이용자에게 대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특별휴가나 연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의 종사자들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마음 놓고 휴가를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기간은 12월 소진시까지이며, 자세한 문의는 충북사회복지사협회(043-232-2213)로 하면 된다.

도 보육정책위원회,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결정

2019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등 심의·의결

충청북도는 1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앞으로 2년동안 도 보육사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과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을 결정하였다.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3명),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각1명), 보호자 대표(4명), 공익을 대표하는 자(5명), 관계 공무원(1명) 등 15명으로 구성되었다.

2019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민간 어린이집 3세반은 286 → 296천원, 4~5세반은 267 → 276천원, 가정 어린이집 3세반은

293 → 303천원, 4~5세반은 286 → 296천원으로 결정하였다. 2019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입학준비금은 9만원~10만원, 아침, 저녁 급식비(1식)는 1,300원~1,500원, 그 외 5개 항목은 동결하였고, 2019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충북대, 충청대), 2019년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비는 16만원으로 결정하였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2개소(충북대, 충청대)에서는 도내 1만여명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등 5개 교육과정을 맡아 이들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수행할 예정이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업무협약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와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총재 안행모)는 15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상호지원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문봉사단의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관계 형성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봉사를 널리 전파하는 목적으로 체결했다.

김영석 회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는 국제

라이온스협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자원봉사 활성화 뿐만 아니라 충북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는 도내 자원봉사 실적 인증사업으로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16,369명의 자원봉사자와 209팀의 지역사회봉사단이 등록되어 있다.

자원봉사 참여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 VMS(1688-1090)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웰치과
CHEONGJU WELL DENTAL CLINIC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 지정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치과교정과 어린이치과
치과보존과 치과보철과

- 보철임플란트(65세 이상) 전문 치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26(북대동) 마이크로병원 B/D 3층 T. 043-278-8100 F. 043-278-8006

증평군, 오는 3월부터 '택시경찰대' 운영

행복택시·문화버스 이어 교통복지 실현... '치안 담당'

증평군이 다양한 대중교통을 활용해 주민 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현재 행복택시, 문화산책버스 운행에 이어 오는 3월부터는 '택시경찰대'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택시경찰대는 1일 1회 순찰을 원칙으로 노인정 등 순찰 거점을 돌며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 방지에 힘쓴다. 긴급상황 발생 시 지구대, 소방서 등 관련기관에 연락토록 신고 체계도 구축한 만큼,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초동조치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위촉인원은 개인택시 운수업자 69명으로 활동결과에 따라 추가 위촉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복택시, 문화산책버스 운영도 큰 인기다. 증평군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11월 문화산책버스 운영을 시작했다. 이 버스는 1일 8회에 걸쳐 증평

역에서 증평읍 연탄리까지 33개 소를 돌며, 주민들의 공공시설 이용을 돕고 학생들의 학업·문화 체험활동 후 귀가를 책임지고 있다. 특히, 문화산책버스는 지난 1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포털(www.korea.kr)에 농촌형교통 모델 전국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2015년부터 운영 중인 행복택시도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발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행복택시는 1인당 1천300원의 요금만 내면 나머지는 군이 부담하기 때문에, 적은 부담으로 이용

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지난해 운행 1천174회, 이용객 1천275명의 실적을 거두며, 2016년(802회 917명)에 비해 운행횟수는 46%, 이용객수는 3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군은 1~4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이동차량을 운행하는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내실화에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활용한 각종 시책으로,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석구석 범죄 예방... 증평군 'CCTV' 100대 설치한다

2억7천만원 투입... 범죄 사각지대 해소 '기대'

증평군이 올해 2억 7천500만원을 투입해 생활안전카메라를 설치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군은 올해 신규 28대, 노후교체 72대 등 총 100대의 CCTV를 설치한다. 주요 설치장소는 농촌 빈집 등

범죄취약지대와 주요 교통사거리다. 양질의 영상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저화질의 카메라보다 고화질로 교체한다. 군은 이번에 확대 설치한 CCTV도 증평군영상관제센터에서 총괄 관제토록 한다.

센터에서는 12명의 관제 요원들이 24시간 영상을 주시하며 각종 사건사고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증평군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증평군의 인구 1천명당 범죄발생건수는 2017년 28.5건, 2018년 26.2건을 기록해 충북 평균 31.6건(2017년도 기준)을 밑돌았다.

이외에도 지난해 7월 도로 배회 치매노인 발견 귀가조치 등 CCTV가 군민 안전지킴이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증평군에는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법용 466대, 차량번호 인식용 94대, 재난재해감시 29대 등 총 720대의 CCTV가 주민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로 산모·아이 건강 'UP'

충북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첫 수혜자 단양서 탄생

산모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첫 수혜자가 단양군 매포읍에서 탄생했다. 이 사업은 2019년 전국 최초로 충북에서 출산한 산모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것으로 산모측이 연간 3만6천원의 자부담을 납부하고 도·군비를 보조해 18만원 상당의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원하는 시기에 공급한다.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인 유

안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기해년 첫 산모인 매포읍 최모씨에게 전국에서 최초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는 사례로 당초 사업계획인 택배로 전달하기보다는 직접 방문해 전달하기로 했다. 산모 최씨는 "아이가 우리에게 와준 것이 큰 축복인데 친환경 농산물까지 이렇게 직접 전달 받게 돼 더 큰 축복이 됐다"며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단양군 매포읍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아이탄생의 축복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도 받아보는 소소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 안내 및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상담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및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등 치매지원서비스 홍보 치매예방수칙 3·3·3(3권(勸)·3금(禁)·3행(行)) 및 치매예방운동법 등 치매예방관리사업 홍보 등에 나섰다. 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따르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소외감, 박탈감, 무력감 등을 야기하고 심리적 부담을 높여 질병관리역량과 서비스 접근성 저하를 초래하는 만큼 치매인식개선이 꼭 필요하다.

"치매, 부정적 인식 개선으로 치료 접근성 높여요"



과산군 보건소는 시장상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과산보건소 인식개선 캠페인

과산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이영남)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줄이기 위해 1월 28일 과산읍 전통시장 일원에서 시장상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쳤다. 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이날 캠페인을 통해 치매인식개선 홍보 치매선별검사 실시 및 치매

아이낳기 좋은 영동... 출산·양육지원 조례 바뀐다

'아기등록증' 신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개정

영동군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기등록증'을 발급하고 출산·양육 지원 관련 조례도 개정하기로 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출산양육지원금'으로 바꾸고, 지원대상을 '자녀의 출생 등록부터 자녀와 보호자가 영동군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변경한다. 이때 보호자는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영동군

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자녀 이후의 자녀는 그 이전 출생한 자녀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자녀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했을 때도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첫째 자녀 350만원(일시금 50만원, 매월 15만원씩 20회 지급), 둘째 자녀 380만원(일시금 80만원, 매월 15만원씩 20회 지급), 셋째 자녀 510만원(일시금 150만원, 매월

15만원씩 24회 지급), 넷째 이후 자녀 760만원(일시금 160만원, 매월 20만원씩 30회 지급)이다. 아기등록증도 신설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그 자녀가 군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게 발급한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 등록된 때, 다른 지자체로 전출했을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는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한다.

영동·옥천군 "유아 교육시설 수도세 감면혜택"

감면 대상 유치원·어린이집까지 확대 실시

영동군과 옥천군의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유아 교육시설도 포함될 전망이다. 영동군은 '영동군 수도요금 조례'를 개정해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유치원·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산업용 요금 대상을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면율은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20% 선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영동군의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대상은 재난지역(50%), 중수도·빗물 이용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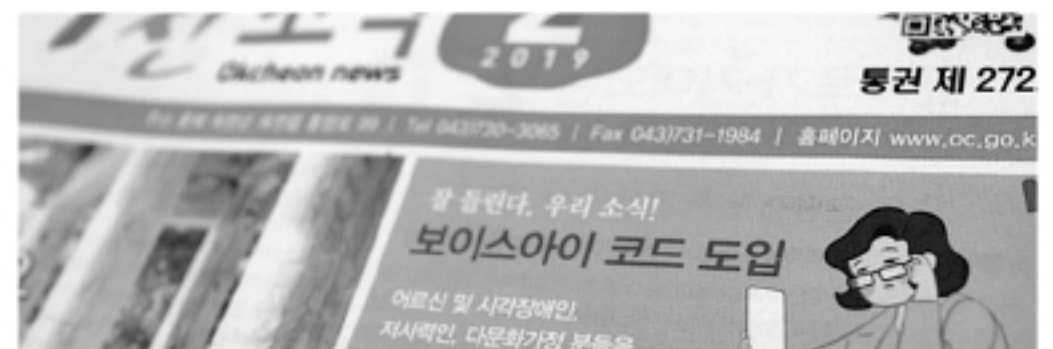
설 설치한 곳(5%), 불가안정 모범업소와 모범음식점(20%), 다자녀가구(가정용 사용량 5t) 등으로 확대된다. 산업용 수도요금 대상은 축소한다.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를 감면대상으로 했지만, 산업단지에 있더라도 '지원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옥천군도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수도요금 감면이 요청됨에 따라 조례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낮추기로 했다. 군은 교육용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유치원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그러면 옥천지역 단설유치원 1곳과 사립유치원 4곳(1곳은 휴원 중)이 상수도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군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용 수도요금도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용 3단계가 적용돼 1당 1910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2단계(1당 1630원), 또는 1단계(1당 1330원)로 낮출 예정이다.

'보이스아이' 코드로 들리는 소식지 받아보세요

옥천 '향수고을 옥천소식' 고령·시각장애인 등 배려

옥천군이 고령자나 시각장애인과 같은 활자를 읽을 수 없는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2월호 소식지부터 보이스아이코드(Voiceye Code)를 도입했다. '향수(鄕愁)고을 옥천소식'이라 불리는 옥천소식지는 1978년 반상회보로 시작해 1996년 7월 지금의 소식지 형태로 바뀌었다. 매달 2만여부가 무료로 발행돼 군민과 출향민 등에게 군정, 복지, 농업, 교육, 문화 등에 관한 풍성한 읽을거리와 생생한 지역의 소식을



옥천군이 군정 소식지 2월호 표지에 보이스아이코드를 도입했다.

전하고 있다. '보이스아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은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최근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바 있다. QR코드와 비슷하게 생긴 보이스아이코드는 '2차원바코드'로, 텍스트 정보를 작은 정사각형 바코

드 안에 저장된 인쇄물의 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휴대용 음성 변환 출력 시스템이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보이스아이 어플을 실행해 소식지 각 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페이지에 적힌 글이 음성으로 나온다.

옥천군, 노인운전자 '어르신 운전 중' 자동차 스티커 배부

고령자 교통배려 문화 확산

옥천군은 고령운전자를 위한 '어르신 운전중' 스티커를 제작해 2월부터 교부한다. 노인층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 운전자를 보호하고 운전

자가 노인층인 것을 알려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전한 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이다. 스티커는 읍면사무소 복지업무 창구와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등에서 희망하는



'어르신 운전중' 스티커 노인운전자면 누구나 교부받을 수 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 지면 | 크기 | 배색 | 금액(원) |
|-------|------------------------------|----|---------|
| 1면 | 4단 (360mm×138mm) | 컬러 | 300,000 |
| |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 컬러 | 100,000 |
| 2면~7면 | 4단 (360mm×138mm) | 흑백 | 150,000 |
| 8면 | 4단 (360mm×138mm) | 컬러 | 200,000 |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올해 장애인등급제 폐지 '복지 강화'

장애 등급 '단순화' 혜택 대상 확대... 기초급여액 인상 특수학교·학급 증설... 장애인형 점진기관 등 확충

오는 7월부터 1~6등급으로 나뉘던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등록 장애인을 중증 및 경증 장애인으로 단순화한다.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1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중전의 1~6등급 장애인

등록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현물·현금지원 등 서비스 지원 기준도 장애등급이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 가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정한다. 다만 건강보험료·전기요금 감면 같은 경우엔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는

경우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를 설립하고, 특수학교·학급(3개교, 250학급)을 신·증설한다. 공공어린이재활 의료기관 4곳과 장애인화장실 20곳, 장애인국민체육센터 30개도 확충할 계획이다.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 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한다.

또한 청각장애인 대상 영어시험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확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4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장애인 커뮤니티케어)'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3월 유엔에 제출할 예정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와 장애인 빈곤 감소 등 10개 목표를 담은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2019~2022년)'도 논의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3명이 참석했다.

고령화 가구 빈곤을 악화 불러

한경연 "노동시장 개선해 고령층 취업 지원 강화해야"



최근 10년간 가구 빈곤이 심화된 것은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3일 '고령화 시대 가구특성 분석과 노인 빈곤을 완화할 위한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경연이 한국복지패널의 최근 10년간 자료(2007~2016년)를 활용해 전체 가구의 가구 빈곤율을 추정한 결과, 시장소득 기준 가구 빈곤율이 0.245에서 0.275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이고 여기에 조세지출·공적이전소득을 반영하면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전체 가구를 일반가구와 노인가구(가구의 수가 65세 이상)로 구분하면 일반가구의 빈곤율은 2007년 0.143에서 2016년 0.121로 개선됐지만, 노인가구 빈곤율은 0.655에서 0.651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특히 2016년 기준 노인가구 빈곤율은 일반가구 빈곤율의 약 5.4배에 달했다.

한경연은 최근 고령화 심화에 따라 노인가구의 비중이 증가(0.200 → 0.291)하면서 빈곤율이 높은 노인가구의 상대적 비중이 커지고(0.535 → 0.688), 결과적으로 전체 가구의 빈곤율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소득이 아닌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측정한 전체 가구 빈곤율은 0.199에서 0.191로 미미하

지만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이 가구별 특성에 따라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을 분해한 결과, 노인가구는 일반가구보다 미취업 가구주 비중과 1인 가구 비중이 높고 학력 수준과 취업가구주 비중은 작았다. 구체적으로 2016년 기준 노인가구에서 미취업 가구주 비중은 68.4%, 중졸 이하 학력 수준은 71.6%, 가구주 제외 취업가구주 수 0~20% 비중은 75.0%, 1인 가구 비중은 44.4%였다. 한경연은 "이러한 가구적 특성은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격차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이라며 "가구의 취업 여부(37.9%), 가구주의 학력 수준(18.2%), 취업자 가구주 비중(9.2%) 등 순으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의 경우 빈곤층을 탈출하는 데 있어 근로소득의 상대적 기여도(일반가구 78.7%·노인가구 44.7%)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노인가구의 취업이 노인가구 빈곤율에서 매우 중요한 점을 알 수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고령층에도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기회를 늘리고 여성 등 노인가구 가구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초과근로 감소 추세

작년 사업체 조사결과... 1인당 평균 0.8시간 ↓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임금 격차 '183만3천원'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제조업 을 중심으로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월30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1.4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0.8시간 줄었다.

이 중 제조업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9.5시간으로, 전년 같은달보다 1.9시간 감소했다.

제조업 중에서도 초과근로시간 상위 5개 업종 노동자의 초과근로시간 감소폭은 더 컸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노동자의 작년 11월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0.7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16.9시간이나 줄었

다. 식료품 제조업(-13.6시간)과 음료 제조업(-10.4시간)도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이 컸다.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시행 중인 노동시간 단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 등 영향으로 제조업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초과근로시간은 노동시간 단축뿐 아니라 경기 상황을 포함한 외부 요인의 영향도 받아 한 가지 변수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작년 11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1인당 노동시간은 173.3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2.8시

간 감소했다. 이는 작년 11월 근로일수(21.1일)가 전년 같은달보다 0.2일 줄었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상용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181.8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2.6시간 줄었고 임시·일용직의 노동시간은 99.5시간으로, 5.1시간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1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1인당 임금 총액은 310만3천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9만6천원(3.2%) 증가했다.

상용직의 임금은 329만3천원으로, 9만7천원(3.0%)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146만원으로, 6만9천원(4.9%) 늘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 격차는 183만3천원에 달했다.

1~300인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286만7천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2만1천원(4.4%)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436만5천원으로, 8만7천

원(2.0%) 감소했다.

이는 전자부품을 포함한 일부 제조업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2017년 특별성과급 지급 시기 변경 등에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작년 12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1천790만2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8만6천명(1.6%) 늘었다.

상용직은 23만8천명(1.6%), 임시·일용직은 3만6천명(2.0%), 기타 종사자는 1만3천명(1.2%)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3%), 도매 및 소매업(2.3%),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4.9%)에서 종사자 증가 폭이 컸다.

제조업 종사자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9천명(0.2%) 감소했다.

지난해 월별 사업체 종사자 수의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산출한 2018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1천780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27만8천명(1.6%) 늘었다.

소득상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

건강보험 소득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본인부담상한액은 1년간 병원 이용 후 각종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3구간(소

득 5분위 이하)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설정한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에 120일 이내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1분위)은 80만원에서 81만원으로, 2구간(2~3분위)은 100만원에서 101만원으로, 3구간(4~5분위)은 15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에는 구간에 따라 1만~3만원 인상된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은 4구간은 260만원에서 280만원, 5구간은 313만원에서 350만원, 6구간은 418만원에서 430만원, 7구간은 523만원에서 580만원 등으로 크게 오른다.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환급액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을 반영한 조치로 형평성을 보완한 것이다. 지난해 구간별 평균 환급액은 6분위 이상이 253만원, 5분위 이하는 161만원이었다.

올해 대학생 3명 중 1명 '반값등록금'

국가장학금 대폭 ↑ ... 69만명에 절반 이상 지원 전망

올해부터 대학생 3명 중 1명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할 '반값등록금' 혜택을 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B0 또는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경제적 형편에 따라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정부는 가구소득을 맨 아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간부터 맨 위 10구간까지 총 11개 구간으로 나누는데,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8구간까지가 국가장학금 대상이다.

구간에 따라 장학금 액수가 달라지는데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경우까지는 연 520만원을 받는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교육부는 올해 중간구간(6구간)의 중위소득 대비 소득 기준을 일부 늘려,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대상자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130% 수준인 학생은 작년에는 연 120만원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368만원을 받게 됐다.

이로써 전체 대학생(약 219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약 69만명의 학생이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받아 '반값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66만5천명보다 2만5천명가량 늘어난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6천5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95억원 줄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생이 작년보다 1.8%가량 줄어들 전망이어서 재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에는 영향이 없게 됐다.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을 산정할 때 아르바이트 등 때문에 스스로 소득이 있는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을 일정 부분 빼주는데, 이 공제액도 10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학들이 단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중인 대학 입학금은 작년까지는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감면되도록 바뀌었다. 재외국민 소득 구간 산정에 작년까지는 최대 12주까지 소요됐으나, 국내 대학생과 똑같이 4~6주가량 걸리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올해 신입생·편입생은 자신의 학교가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분류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 학교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봉사단 위촉 기준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 봉사활동 분야

| 구분 | 내용 |
|-------|---|
| 기술·기능 |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기능전수 등 |
| 상담·정보 |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
| 운영·지원 |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
| 문화·예술 | 음악, 연극, 무용진행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
| 교육·학습 | 나눔·경제교육,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
| 노력·행정 |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
| 보건·의료 |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업무보조 등 |
| 교통·환경 |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

4. 봉사단 혜택

-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중복지원 불가, 총복지회복지자원봉사대회 참석)
-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 ▶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5. 신청 및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김민지 코디네이터

전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도 올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가속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공모 6년 연속 선정 사업비 5억7천만원 확보·참여자 380명 목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이하 협의회)가 2018년도에 이어 고용노동부에 공모한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고용노동부와 충청북도로부터 사업비 576,080천원을 지원 받는다.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충북에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6년 연속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게 되었다. 3년 이상의 전문경력이나 자격증을 소유한 만 50세 이상 전문인

력이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해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자신의 재능에 따라 활동처와의 매칭을 통해 행정지원, 상담멘토링, 사회서비스, 경영전략, 외국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해당 사업 참여자에게는 교통비, 식비 등 일정 금액의 활동 실

비가 지급되며, 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 참여자 및 참여기관은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참여 및 문의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www.cwin.or.kr/043-234-0840-2)로 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기본교육(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역할 및 이해 등)을 수료한 이후 활동 할 수 있다.



충청어린이집 원아들이 용돈으로 모은 성금 62만7640원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고사리 손 정성 모아 전달했어요”

충청어린이집 ‘칭찬미션’ 통해 모은 62만원 기탁

충청시 탐등에 소재한 충청어린이집 원아들이 고사리 손으로 모은 성금 627,640원(저금통 84개)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 성금은 충청어린이집이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한 ‘칭

찬미션’을 통해 가정에서 아이들이 칭찬을 받을 때마다 주어진 용돈을 모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였으며, 기탁된 성금은 충청시 지역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에 긴급성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칭

하게 된다. 최영수 원장은 “아이들이 칭찬미션을 통해 모은 용돈을 좋은 일에 동참하고자 이 행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끈은 인성의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1년째 인술 펼치는 참의료인 ‘눈길’

청주 참조은치과병원, 신학기 지원금 500만원 기탁

청주 참조은치과병원이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을 위해 11년째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참조은치과병원은 7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에 2019년 신학기 지원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신학기 지원 후원금은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에게 교복비와 신학기 준비비를 전달하는 나눔 캠페인이다.

이날 전달한 후원금은 청주시 저소득 가정 청소년 16명에게 지원된다. 참조은치과병원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4천4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 김진호 참조은치과병원 대표원장은 “하지만 10년 넘게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신학기 지원을 통해 지역의 청소년들이 깨끗한 세



참조은치과병원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지역 내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금을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에 기탁했다.

교육을 입고 미래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조은치과병원은 이의

에도 치과 검진이 필요한 아동을 추천받아 진료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주복지재단에 바란다”

청주가톨릭청소년센터서 ‘민·관 협력 위한 역할’ 토론회 시민 복지정보 공유·복지자원 네트워크 허브역할 해야

청주복지재단은 지난 1월 24일 청주가톨릭청소년센터에서 ‘민·관 협력을 위한 청주복지재단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재단에 바라는 지역복지계의 다양한 제언을 수렴하고자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는 한범덕 청주복지재단 이사장(청주시장)과 김은숙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청주시의원, 청주시 지역 사회복지 관계자 100여명이 함께 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최충진 청

주시의원은 “복지재단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적 독립, 사무공간 이전,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이 필요하다”며 “민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모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365! 두드림 통합복지포털 사업을 활성화 하고 정기적인 자원현황 집계시스템 등을 개발해 모든 시민이 복지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단이 청주시 복지자원 네트워크의 허브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진 청주대 교수는 “지난 7



청주복지재단은 1월 24일 청주가톨릭청소년센터에서 ‘민·관 협력을 위한 청주복지재단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

년간 재단에서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진행했으나 청주시나 복지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며 “연구주제 선정부터 분야별 자문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연구 과정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열 청주내덕노인복지관장은 “청주복지재단은 공공과 학계, 현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역 내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 우수사업 발굴 및 확산·연계를 위한 시범사업 지원과 보급 체계 마련 등을 재단에 요청했다. 한범덕 청주복지재단 이사장은 “복지재단 발전을 위해 청주시 사회복지계가 머리를 맞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다듬어 재단은 물론 청주시의 사회복지가 한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적십자사, 적십자회비 목표 달성 전국 1위

지난 해 이어 2년 연속... 개인 고액기부자 큰 기여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지사 회장 김경배)는 2018년도에 이어 전국 15개 지사 가운데 2년 연속 1위로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금액을 100% 달성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모금액은 2019년도 모금 목표액 13억 5천만 원 대비 13억 6천 4백만 원(101%)으로 전국 지사 중 유일하게 집중모금기간 내에

달성했다. 충북 적십자 관계자는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지로모금액 감소로 인한 회비모금에 어려움을 예상했으나 후원자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등 충북도민의 적십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모아진 결과 조기

목표 달성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는 적십자사에 2016년 도입된 개인 고액기부자 클럽인 RCHO(RedCross Honors Club)가 12호까지 탄생하면서 조기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다. 2019년 모금된 적십자회비는 재난구호 및 국민안전교육, 지역 취약계층 지원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여성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경제활동·여가문화·건강 중심형 등 4개 과정 진행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19년 여성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성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은 여성이며 장애인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아 존중감, 역량강화 향상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위해 진행된다.

금년에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교육으로 경제활동중심형, 여가문화중심형, 건강중심형, 사회활동중심형으로 4개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관은 캘리그라피 자격과정, 레진아트 감사자격과정, 요리교실, 난타교실, 토탈공예교실, 도예교실, 홈패션교실, 원예교실, 라인댄스교실, 미술심리치료, 건강야카카데미, 지역문화탐방, 지역 장애인단체 연계 등 다양한 프

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대상은 충주시 여성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여성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진행 장소는 복지관 및 충주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 참가비는 5,000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교육지원팀 전화(☎070-4221-9833)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 대표 사회적기업 발돋움

㈜보듬-아동가족통합지원센터, 청년서비스사업단 선정

아동·가족 통합전문치료상담 시·도의 사업단은 15일 오송한 국보건인력개발원에 모여 발대식을 진행했다. 보듬은 청년 미취업자 7명을 채용, 사업단을 꾸려 전문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청년들은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단과 함께 지역 내 건강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게 된다. 보듬은 청년대상 ‘연결과 참여’란 아이টে이로 푸드테라피(요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대상 ‘연결과 참여’는 청년

들 스스로 건강을 위한 영양관리, 식생활 개선을 하도록 영양 교육을 진행한다. 또 푸드테라피를 통해 신체·정서적 안정을, 식생활 개선으로 일상생활의욕 고취 및 자존감 회복 등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이외에도 스트레스나 우울, 흡연, 음주와 같은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 치료를 돕는다. 개인 맞춤형 식단 및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도 제공하며 부가적으로 취·창업에 관한 전문가 초청 특강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했던 청년들에게는 사업 종료 후에도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을 알선해 준다.

돌봄종사자 인식개선 및 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사업

사업내용

1. 돌봄종사자의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집단상담, 미술치료, 웃음치료, 안전교육, 의사소통교육, 호스피스교육, 소모임 지원 및 개발
2. 사회인식개선을 통한 건강권지원
좋은 돌봄의 중요한 요소인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하기 위하여 돌봄종사자를 위한 사회적 관심을 도모
3.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권익옹호
돌봄 인력의 사회권에 대한 입체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돌봄종사자의 권익향상을 도모

사업기간 18년 9월~ 19년 8월

충북도내 돌봄종사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건강권 증진과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건강·교육·인식개선·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지역이 만들어간다

2019년 6월부터 2년 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의 의미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 선도사업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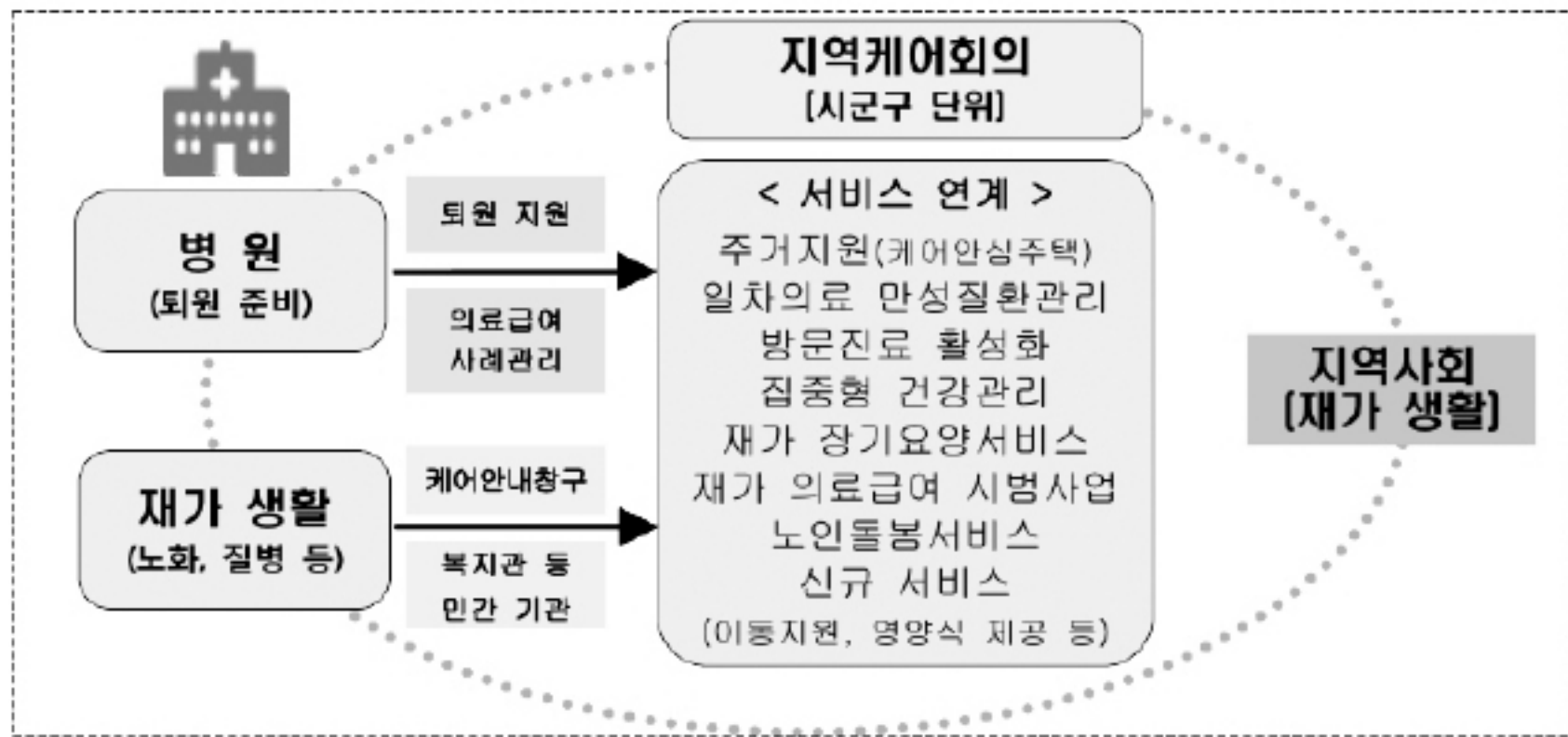
- 1. 각 시군구(지역)의 자율·창의·다양성을 최대한 반영**
복지부는 대상별 기본 모델과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연계사업)의 목록(메뉴판)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이를 참고하여 사업 목표와 대상을 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 2. 지역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투입·활용**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운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요인을 찾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 3.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업으로 운영**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민·관 협력, 주민 참여)이 참여하여 함께 사업을 기획·추진하여 추진과정에서 상황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운영한다.
- 4. 다양한 연계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여 시너지효과 극대화**
선도사업 자원 활용 외에도 복지부·행안부·국토부의 연계사업을 동시에 실시하여 사업·서비스 간 연계모형을 구현하고자 한다.
- 5. 선도사업 확산·발전**
선도사업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 지자체도 자체 재원으로 선도사업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운영하는 경우 연계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 제공하여 선도사업 종료 후에도 지자체에서 커뮤니티케어 제공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적용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법·제도 정비, 인프라 확충 지원 지속적으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따라서 선도사업 예산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가 의료급여 등 다양한 연계사업과 지자체 자체 예산, 민간 기관의 예산 등으로 전체 재원이 구성된다.
* 2019년 7개월분 국비 약 64억원(국비 5 : 지방비 5)

· 2019년 선도사업 개요

- 1) 대상군: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
* '19년은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을 실시하며, 지자체가 희망할 경우 다른 대상자에 대한 사업 실시 가능
- 2) 사업내용: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
- 3) 사업규모: 선도사업 예산 + 연계사업 예산 + 자체 재원으로 구성
- 4) 사업주체: 기초자치단체를 기본 사업 단위로 하되, 노숙인·정신질환자 사업은 광역자치단체와 협업 가능
- 5) 지자체 선정: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8개 지자체 선정(노인4, 장애인2, 정신질환자1, 노숙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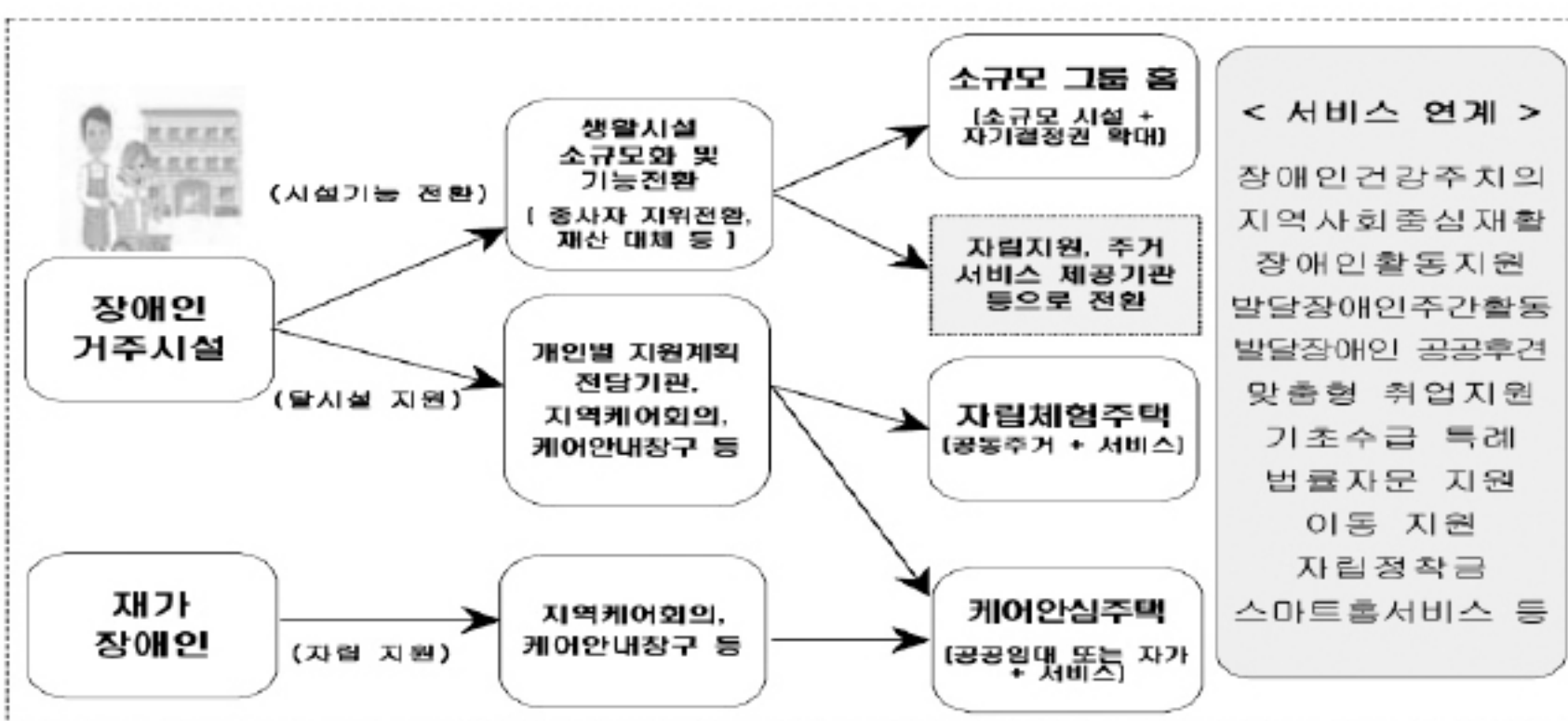
· 대상별 선도사업 기본모델 및 지원가능 서비스 목록

①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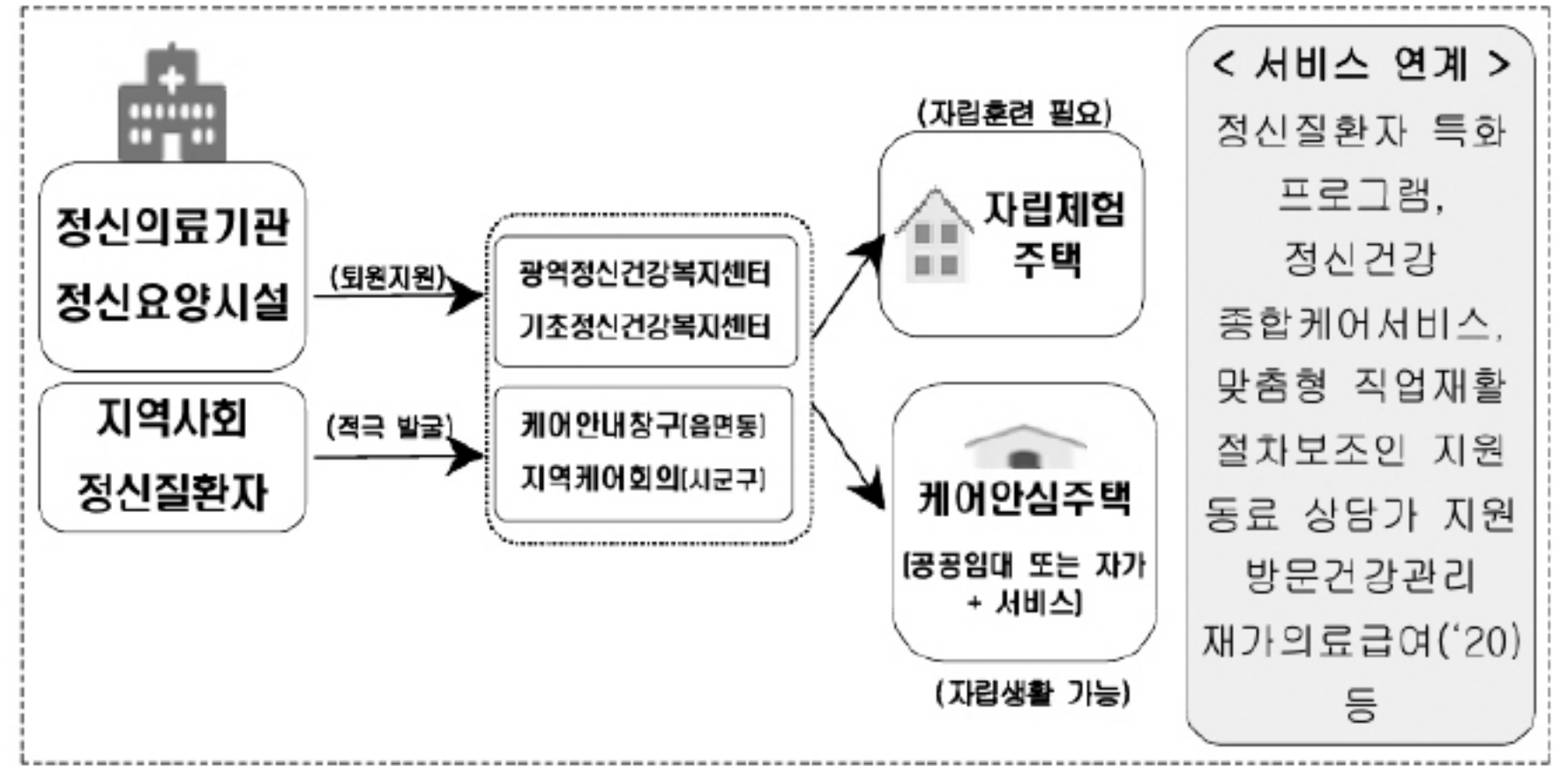
노인 선도사업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된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이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시설 입소)이 불가피할 수 있는 노인도 포함된다.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의 경우 병원의 '지역연계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퇴원 전에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준다.
지자체는 노인의 욕구를 조사하여 퇴원계획 또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선도사업 지역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집중형 지역사회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는 실증사업을 함께 실시하여 방문진료,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자의 건강을 관리한다.

②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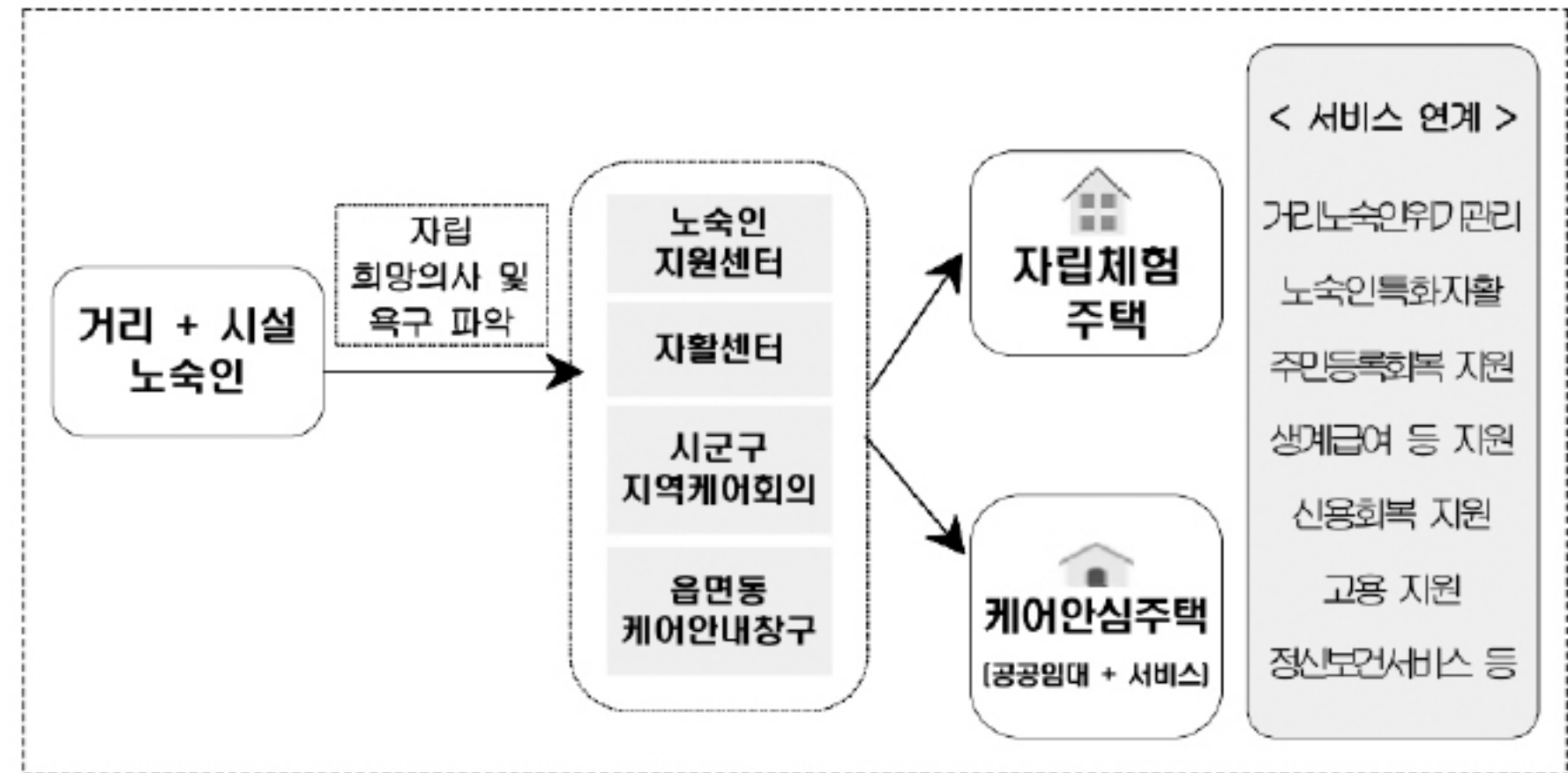
장애인 선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대상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이다.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 시설 욕구를 조사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체험주택과 케어안심주택의 2가지 유형의 주거모델이 제공된다.
* 자립체험주택: 장애인 2~3인이 생활(개별 거주, 공용 공간, 지원인력이 자립 훈련 등 지원(1~2가구당 1명), 이후 케어안심주택으로 전환 지원)
* 케어안심주택: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 지원인력이 정기 방문·지원
탈 시설 후 초기 자립을 위한 정착금과,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건소) 연계를 통해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선도사업 지자체는 거주시설과 협의하여 거주시설을 소규모화하면서 기능을 전환하는 실증사례를 1개소 이상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③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모델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증 모델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기간이 약 200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선도사업과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케어(지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선도사업 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어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처럼 지역에서 정신의료기관과 지자체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선도사업 지자체에서는 퇴원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수요자를 정기적으로 방문·관리하는 상시 지원모형을 구축할 계획이다.

④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



노숙인의 심리 치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시설 노숙인 대상의 자립체험주택과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안심주택 두 가지 주거 모델을 운영한다.
* 자립체험주택: 4명 이내 소규모 인원이 공동생활, 생활지도사 등의 정기상담과 사회적 학습 등 지원
* 케어안심주택: 개인별 주거공간과 함께 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원하며, 지역 자활사업과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연계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동네의원 연계 등을 통하여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결핵 등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 추진체계 및 일정

- 지자체는 이러한 대상별 기본 모델과 서비스 목록을 참조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신청할 수 있다.
-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 지역의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단체·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대학, 종합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한다.
- 복지부는 공모기간 중에 워크숍을 실시하여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 광역지자체별로 대상별로 일정 수의 공모 참여 지자체(시군구)를 선정하여 제출하면 복지부는 대상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 "다직종 연계" 실행 가능성, 지자체의 수행역량·외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고자 한다.
- 선정이 된 지자체 소속 관련 공무원,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과 공공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 복지부와 선도사업 지자체 간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원반을 운영하여 지자체의 선도사업 수행을 밀착 지원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실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통해 누구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발을 디딘 의미를 가진 만큼 정책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칼럼 Column

사회복지기관의 갑질과 윤리강령



황명구

충청북도 사회복지정책보좌관

고루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윤리다. 장유유서(長幼有序)란 말이 있다. 맹자에 나오는 말이다. 먼 옛날 순임금이 다섯가지 유형의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제시했다. 부자유친은 부자관계, 군신유의는 상하관계, 부부유별은 부부관계, 봉우유신은 수평관계, 장유유서는 친족관계에서 서열을 말하는 것이다.

왜 이 말을 꺼내느냐 하면 요즘 사회복지기관에서 나타나는 비윤리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이다. 기

관 및 기관장의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몇 년사이 우리 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도 인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기관장이 직원을 마치 종, 하인처럼 생각하는 사람, 기관을 운영하면서 클라이언트를 자신의 밥줄로만 생각하는 기관장, 장애인·노인·아동 등을 빌미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기관장, 자신의 기관에서 직원 및 클라이언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타기관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라고 성명서 내는 사람과 단체. 어찌된 일인가? 누구를 위한 율령인가?

사회복지기관은 삶이 버거운 사람들을 위한 기관이다. 이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할 때 의미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들은 좀 더 행복한 모습이어야 한다. 힘든 삶의 기쁜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원들이 살 수가 없다고 한다. 업무도 많아 매일매일 아귀를 통한 삶을 살기 일쑤다. 개인 삶보다 기관과 클라이언트 행복이 우선으로 산다. 일로 힘든 것은 견딜만하다고 한다.

더 못 견디게 힘든 것은 기관장의 갑질이다. 직원들의 행동, 언어, 우

차림 등을 감시하는 기관장, 외출을 하거나 휴가를 가거나, 사람을 만날 때마다 누구 만나는지 보고하라는 기관장, 결재를 할 때마다 내용보다 오타와 이미지로 모욕을 주는 기관장, 자기 기본에 따라 직원들 숨을 못 쉬게 하는 기관장, 그러면서 밖에서는 천사로 돌변하는 기관장, 직원들은 다 알고 있다. 이들의 이중성을.

기관장은 언제나 장유유서를 통한 조직운동을 강조한다. 나이, 직급, 상하관계를 중시한다. 장유유서를 빌미로 언제나 자신의 힘을 과시한다. 그러나 장유유서는 가족관계에서나 쓰는 용어이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마치 사회복지기관이 자신의 기관으로 착각하는 기관장들이 많은 것 같다. 사회복지시설 기관은 대부분 위탁시설이다. 정부가 잠시 맡긴 것이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 사회복지기관이다. 공공기관이든, 사회복지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개인시설이든 모두 공적자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조직을 사조적으로 착각하는 기관장들이 참으로 많다.

장유유서는 집으로 돌아가 가정에서 실천하라. 사회복지에는 사회

복지윤리강령이 있다.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보장활동에 헌신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 자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동료와 관계, 수퍼바이저 역할 등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해마다 행사 때마다 사회복지윤리강령을 선언한다. 말뿐인가?

사회복지기관장이 가장 중요하다. 기관장은 개인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지?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 수행하고 직원들과 공유하는지?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는지 등등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회복지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기관운영자의 가치와 자질이 더 중요하다. 타인과 타기관의 인권을 논하기 보다는 자신 즉 사회복지인으로서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필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회복지기관 운영자들은 한번 생각해 보자. 무엇이 우선인지.

칼럼 Column

“위로와 위안”



연현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다른 달에 비해 날씨가 2~3일 적은 2월은 명절까지 끼여 있으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전년도 사업을 정리하면서 여영 부영했던 1월,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해보려고 하지만 “명절 지나고 하지.” 하는 생각을 거둘 수가 없는 듯합니다. 늦었지만 독자 여러분!! 2019년 다함께 복 서로 잘 지으며 지냅니다.

몇 해 전 직장을 옮기며 새로이 시작했던 일이 책을 좀 더 많이 읽고 싶어 독서 모임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고, 책 사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그동안 해보지 못한 잊혀진 혹은 숨겨둔 작은 욕망, 거창하게 말하면 꿈을 실현하는 듯한 마음으로 가입했지요. 처음 시작했던 그 해에는 한 달에 1번씩 하다가 점차 만나는 강도를 올려 매주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모임을 한다고 하여 매주 모임을 참석하는 것도 못할 뿐더러 매주 책을 다 읽지도 못하고 있지만, 나름의 뿌듯함을 느껴 혼자만의 위로와 격려를 하지요. 2월 모임에서 다 같이 읽은 책은 서경식 교수님의 “나의 서양 미술 순례”라는 었습니다. 서양이라는 글씨를 보아하니 오래된 책, 미술 순례라는 글씨를 또 보아하니 예전 유럽을 미술 사조를 이끌었던 성경 속 구절 등을 그림으로 표현했는 것이라 짐작이나 추정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의 추정과 짐작은 모두 어느 정도 들어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짐작과 추정(다른 말로 표현하면 편견이나 선입견이 되겠죠)은 미술사에 대한 혹은 미술에 대한 서평이나 설명 그에 따른 본인의 고찰이나 느낌, 경험일 것인데 이 책은 그것을 보기 좋게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서경식 교수님은 재일교포이며 1980년대 한국의 현대사가 그대로 가족의 삶 속에 들어와 “생활”의 변화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 아픔을 경험한 것을 부모님의 사망 이후에 누이를 위로한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유럽(서양)의 미술관을 다니며 미술을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위로와 위안을 받은 것으로 어려운 말로 작성하여 출판한 것이 이 책이더군요. 중요한 것은 이 책은 여행과 미술을 통해

위로와 위로를 받았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얻지 못하면 안될 것 같은 이상한 불안감으로 책에 나오는 그림, 조각,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저자가 생각한 또 다른 그림은 물론 화가, 조각가, 사진 등을 검색하고 또 검색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가가 무엇을 의도했던 작가가 그림으로 받았던 위로와 위안은 너무나 힘들게 책을 읽어 모임에도 나가기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신년에 서점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구매하는 책 중 하나는 자기계발서 혹은 위안과 힐링을 위한 책, 심리학 관련 한 책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무언가 해보겠다는 욕심,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 대한 보상, 힘들었던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지 들여다 싶은 욕망으로 이런 책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러한 것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천을 하지 못하거나 상황이 안되거나 해서 우리 모두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남들이 위로를 거기서 찾았다. 받았다 하여 나도 꼭 거기서 위로와 위안을 받지 않을 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곳에 그래도 있다는 것은 스스로 위안과 위로를 주고 받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월에는 설날 뿐 아니라 정월대보름도 있습니다.

방아찝고 있는 토끼가 과연 소원을 들어줄지 안들어 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 해 덜 조금씩 하며 살고 싶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가 해 준 말이 기억이 납니다. “과거의 나와 경쟁하지 말자” 과거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죠?

2월 모임을 마치며 자신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는 것, 되었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박한 우리 모임 가족들은 걸그룹을 통해서, 잘생긴 배우를 통해서, 기다렸던 공연을 보면서, 배우자에게서, 가족들에게서 위안과 위로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그 중 한 분이 박수근님의 그림엽서를 보여주며 몇 해 전 여행을 가서 미술관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하면서 제목도 모르고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이 그림에서 무척 따뜻한 느낌을 받아 차가운 냉장고 앞에 이 그림을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차가운 냉장고 안에는 고향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긴 어머니의 반찬이 있다며 냉장고 문을 열면 고향 마루에서 어머니가 반찬을 주시는 풍경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멀리에 있을 수도 있고,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없이 하루 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Who am I ?



이범근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2014년 사회복지 실습을 하면서 과제로 “사회복지사가 꼭 알아야 할 35가지”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중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20번째의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라”라는 내용이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하였듯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대해 “자신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자신과 일과 인간관계에서 무엇을 앞세워야 할지 명백하게 하는 일입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일이고 어디서부터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일입니다. 이 부분이 선명하지 않으면 일을 해도 보람이 없고 사람을 만나도 지겨울 뿐입니다.”라고 책에서는 언급하고 있다.

“레 미제라블”이라는 책이 있다. 흔히 “자유에 대한 투쟁”, “장발장의 일대기” 등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해 “장발장의 정체성 확립”이라 칭하고 싶다. 왜냐하면 “Who am I?”라는 말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철학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질문이다. 탈레스 역시 이 질문으로부터 생각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자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일 한지 올해로 4년 차가 되었다. 아직 햇병아리에 지나지 않지만 다양한 일을 한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그 분야

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어느 때는 주력전문가, 어느 때는 법률전문가, 어느 때는 재무설계사 등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작 “사회복지사”라는 정체성을 잊고 있을 때도 있으며 많은 업무에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있을 때가 많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렇기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 주어진 일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고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닌 지금을 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하게 된다.

“사회복지사란?” 질문을 던져 본다. 선 뜻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 첫 마음, 첫 생각을 보면 “사람들이 사랑받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길을 들어서 생활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 마음도 잊고 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반성해 본다. 다양한 업무를 하며 잘하지 못하는 행정 업무에 허덕이고, 사람과 만나 이야기 나누는 것이 어느 순간 부담으로 다가온다. 분명 우리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회복지사는 형식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다. 과연 나는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는가? 주어진 일을 처리하기 위해 급급하게 생활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일의 가치와 철학적 질문은 접어 두고 제도라는 틀이 원하는 것에 묶여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4년이라는 시간 “사회복지사”라는 직책으로 일하며 가치의 실현을 위해 일하기보다 직책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 하루를 생활하고 있는 스스로 삶을 돌아본다. “나는 누구인가?”, “사회복지사란?”, “나는 행복할까?” 답은 없는 질문들이지만 인생을 살며 해 볼만한 질문이라고 본다. 지금을 충실히 살기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각자의 꿈과 희망,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나 혼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부터”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을 이루어 가길 바란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사업 안내

법률상담제도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복지”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알선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입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대상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

원만한 변호사(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 간 :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 043)238-0843 / 이메일 : wma7259@naver.com
 사무실 :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상담실

법무부 · 충청북도 ·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달의 법률상식



원명안 변호사

Q.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였고, 현재 양육권자로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 당시 아내가 저에게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전혀 이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합의하여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양육비 청구 관련

정할 수 있는데, 양육을 부담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법률지원, 추심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위 기관에서는,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등을 통하여 양육비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사동정

서은선, 영동군사회복지협의회장 취임

서은선 회장은 2월 1일 영동군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서은선 회장은 이날 취임 포부로 "지역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와 협력하면서 관련정보를 상호 교류하겠다"고 말했다.



이러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유지하며 각종 복지사업을 보다 발전적이고 가치있게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은선 회장은 영동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영동군장애인복지관에서 2년간 관장으로 근무해왔다.

지역사회봉사단

나눔의 인연 봉우회, 무료급식 봉사활동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나눔의 인연 봉우회 봉사단(단장 김종섭, 이하 봉우회)은 지난 1월 20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우회는 2010년 9월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중앙공원에서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섭 단장은 "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재능으로 독거노인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싶었으며, 앞으로도 봉사에 열심히 임해 소의 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 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 (cpcsww@chol.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복지정보 제공

[푸르메재단]부모심리상담치료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19.2.1(금)~2019.3.22(금)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회귀질환 어린이를 둔 부모
- 지원내용: - 지원항목: 부모심리·상담치료비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00만원
- 지원기간: 2019.4~2020.1(최대 10개월)
- 신청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이메일 신청 (보호자 개인신청 불가)
- 진행일정: - 1차 서류평가: 2019.3.25.(월)~2019.3.29.(금)
- 2차 심사: 2019.3.29.(금)~2019.4.5(금)
- 지원자 선정발표: 2019.4.10.(수)
- 치료 진행: 선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2018.4~2020.1)
- 종결보고서 접수: 치료종결 후 2주 이내
- 유의사항: - 지원기간은 최대 10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추가적으로 불가
- 문의: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안선영간사 (전화: 02-6395-7001 / 이메일: sy0121@purme.org)

[푸르메재단]2019 SPC 장애어린이 특이적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 기간: 2019년 5월 ~ 2020년 2월 [신청기간: 2019. 2. 11(월) ~ 2018. 3. 22(금)]
- 지원 대상: 특이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2001.1.1. 이후 출생)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교육비 (사업자등록이 돼있고, 회계증빙 가능한 기관에서 사용가능)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10개월
- 지원 인원: 20명
- 신청방법: - 사례관리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 진행일정: - 사업 홍보 및 지원공지: 2019.2.11.(월)~2019.3.22.(금)
- 지원신청 및 접수: 2019.2.11.(월)~2019.3.22.(금)

- 1차 서류심사: 2019. 3.25.(월) ~ 3.29.(금)예정

- 지원자 선정발표: 2019. 4. 26.(금) 예정

- 지원금 사용: 2019.5~2020.2.(10개월)

- 종결보고서 접수: 교육종결 후 2주 이내

■ 문의: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김연규 (02-6395-7018) / E-mail: kyg1402@purme.org

[KT&G복지재단]2019년 상생편의의료비지원(아동) 신청안내

- 신청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만 18세 이하의 저소득(차상위, 수급, 일반 저소득) 아동·청소년
- 지원내용: 치료비·수술비·재활치료비·보장구 구입 등 의료에 관해 병명 제한 없음. (단, 간병비 제외)
- 지원금액: KT&G 임직원 모금을 통해 최소보장지원금 300만원 ~ 최대 5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매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업신청
- 지원홈페이지(www.ktngwelfare.org) / 사업안내 > 인터넷복지사업 > 상생편의의료비지원사업 > 사업안내 웹 페이지 하단의 [의료비지원 신청] 버튼 클릭
- 참고: http://www.welfare.net

[보건복지부]푸드뱅크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주요내용: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 과태료 부과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관주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 관련 법률」이 개정(2018.03.27.)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
- * 선관주의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약칭으로서 그 업무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하는 의무를 말함
- ** 그간 기부식품등 제공자 및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을 정비

■ 참고: http://www.mohw.go.kr

[아들과 미래재단]2019년도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라이프)대상자 모집

- 지원내용: 고액의 의료비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
- 접수기간: 2019. 2 ~ 11 (상시접수)
- 지원대상: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48명(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지원금액: 차상위계층, 당해연도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 가정
- 지원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을 통해 신청서류 메일 제출
- *개인신청 불가
- 신청서류: 신청서 및 제안서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서 사용
- 참고: http://www.kidsfuture.or.kr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충청북도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목적(안 제4조): 주민자치 실현, 마을공동체 만들기 →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민행복
- 용어정의(안 제2조): 마을, 주민, 공동체, 마을 만들기 → 지역공동체, 지역공동체 활성화
- 명칭변경: 마을,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 다양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지역,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 의견제출: 충청북도 민간협력공동체과(전화 043-220-2564, 이메일 lhj1215@korea.kr)
- 참고: http://www.elis.go.kr

금년부터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선호하는 제품을 직접 선택해서 구입하세요!

신청기간
2019년 1월부터 ~ 2019년 12월 15일

신청대상
2001.1.1.~2008.12.31.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 (2019년 기준)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양육하는 분 (부모님 등)이 신청

문의사항

| 문의처 | 문의 내용 |
|-------------------|-------------------|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 대상 여부, 신청방법 |
|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 바우처 이용 방법, 기명장 문의 |
| PC카드 1899-4651 | |
| 상생카드 1566-3336 | 국민행복카드 발급문의 |
| 롯데카드 1899-4282 | |
| 청소년전화 1388 | 보건위생물품 지원관련 궁금한 점 |

지원대상
2001.1.1.~2008.12.31.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 (2019년 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 현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및 구입방법

1. 바우처 포인팅 시한: 월 10,500원, 연 최대 126,000원
2. 2019년 바우처 포인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함
3.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기명장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국민행복카드사별 기명장

| 카드사 | 온라인 유통점 | 오프라인 유통점 |
|------|----------|--------------------------|
| BC카드 | 지마켓, 옥션 | 이마트, 이마트 토레아(다스, O,온라인점) |
| 삼성카드 | 삼성카드 쇼핑몰 | 이마트, 이마트 토레아(다스, O,온라인점) |
| 롯데카드 | 몰이쇼핑몰 | 롯데마트, VC 마트 |

복/지/만/평

이창신 www.bokmani.com

위대한 독재자란 없습니다.

인종을 청소하라

비판과 견제가 사라진 곳에 정의란 없기 때문입니다

못생긴 애 때려!

교사

지적 장애인 지적 장애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에 타인의 인권이란 없습니다.

자원 봉사자 모집

▶ 사무업무보조

관리센터: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2.1~3.31
전화번호: 043-284-0103

▶ 한글교실 교육지원 봉사

관리센터: 청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2.1~3.31
전화번호: 043-266-4761

▶ 중학생 학습지도

관리센터: 남이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2.1~3.31
전화번호: 070-4149-2345

▶ 도서 정리

관리센터: 충청북도중앙도서관
활동기간: 2.1~3.31
전화번호: 043-267-4590

▶ 요리교실 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꽃동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꿈의집
활동기간: 2.1~3.31
전화번호: 043-930-0292

▶ 사회서비스 사무보조

관리센터: 청주YWCA
활동기간: 2.1~3.31
전화번호: 043-265-3702

▶ 컴퓨터교육 봉사자 '정보화요원단' 모집

관리센터: 충북장애인재활협회
활동기간: 2.1~3.31
전화번호: 043-252-9720

▶ 이동학습지도

관리센터: 한빛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2.1~3.31

전화번호: 043-855-1090

▶ 장난감도서관 정리

관리센터: 충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활동기간: 2.1~3.31
전화번호: 043-857-5960

▶ 중등부 영어, 수학 지도

관리센터: 경희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2.1~3.31
전화번호: 043-296-9333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